유해류 계통의 분류어휘집에 나타난 신체어(Ⅱ)

곽 재 용

이 글은 같은 제목(Ⅰ)(경남어문논집 제5집:1992)로 발표한 논문의 후속편으로 'ㅂ'과 'ㅅ'으로 시작되는 어휘를 대상으로 한다. 그 뒤의 것은 (Ⅲ)에서 다룰 예정이다.

1) 발 脚子〈역어, 상 36〉
발족 足〈왜어, 상 18〉
발 脚〈동문, 상 16〉
발 脚子〈방류, ㅡ18a〉

발은 다섯 역학서 모두에 나타난다. 표제어는 '足, 脚, 脚子'이며 모두 '발'로 실현된다. 중세 국어에서 '脚'은 '발'을 나타내었다. 앞선 문헌들을 살펴보자.

足曰潑 〈계림, 178〉[1)]
脚 把二 〈조관, 417〉
발지 趾 〈훈몽, 상 29〉
발족 足 〈훈몽, 상 29〉
발각 脚 〈훈몽, 상 29〉
발족 足 〈신증, 상 21〉

1) 〈계림〉과 〈조관〉의 숫자는 그 표제어가 나온 순서를 필자 나름대로 붙인 것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계림유사나 조선관역어의 기록으로 보아 신체어 '발'은 중세 이전부터 [발]이라고 소리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훈몽자회에는 발을 나타내는 한자는 위와 같이 '趾, 足, 脚'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 훈도 모두 발'로 실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발은 신체어의 특징인 단음절성, 보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어휘라 하겠다.

2) 발뒷측 脚後跟〈역어, 상 36〉
발뒤측근 跟〈왜어, 상 18〉
발뒤측 脚跟〈동문, 상 16〉
발뒤측 脚跟〈몽어, 상 13〉
발뒤측 脚跟〈방류, 一18a〉

다섯 역학서에 모두 나타난다. 한자어는 '脚後跟, 跟, 脚跟'으로 나타나는데 모두 '발뒤측'을 나타내고 있다. '발뒤측'은 오늘날 '발뒤축'을 나타낸다. 발뒤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발츠기 두려브시며〈월석, 2-40〉
발측 爲跟〈훈민, 해례〉
발측과 밠 엄지가락톱〈구간, 1-81〉
어러 밠츠기 뻐디어 피 나고 알히ᄂᆞ닐 고툐ᄃᆡ(治寒凍足跟開裂血出疼痛)〈구방, 상-7〉
밟뒤추기 넙고 기르시고〈법화, 2-12〉

발뒤축의 오늘날 정의와 '발뒤측'으로 실현되는 방언을 살펴보자.

발뒤축 : 발꿈치의 뒤쪽으로 두둑하게 나온 부분. 한)뒤축.〈한〉
발뒤측 : 황남(벽성, 웅진), 평남(룡강, 온천), 함남(정평, 함주, 오로, 신흥)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김〉

'발뒤측'은 지금 북한의 일부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다.

3) 발ㅅ등 **脚背** 〈역어, 상 36〉
족비 **足背** 〈왜어, 상 18〉
발ㅅ등 **脚背** 〈동문, 상 16〉
발ㅅ등 **脚背** 〈몽어, 상 13〉
발ㅅ등 **脚背** 〈방류, —18a〉

〈왜어〉에서만 한자어로 나타나고 다른 문헌들은 고유어인 '발ㅅ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도 발은 '**脚**'으로 나타난다.

4) 발ㅅ바당 **脚心, 脚掌** 〈역어, 상 36〉
발바당 **脚底板** 〈역어보, 22〉
족장 **足掌** 〈왜어, 상 18〉
발바당 **脚掌** 〈동문, 상 16〉
발ㅅ바당 **脚心** 〈몽어, 상 13〉
발ㅅ바당 **脚心** 〈방류, —18a〉

〈왜어〉를 제외하고 '발ㅅ바당, 발바당'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주로 '발ㅅ바당'류이다. 이에 비해 한자어는 '**脚心, 足掌, 脚掌, 脚底板**' 등으로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다.

5) 발자곡 **脚印** 〈역어보, 22〉
발부릇다 **脚繭** 〈역어보, 22〉
발가락 **脚指頭** 〈역어, 상 36〉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발목 脚腕子 〈역어, 상 36〉

위에 나온 4개 이외의 발 관련 합성어가 하나만 나타나는 예이다. 모두 〈역어(보)〉에만 나타난다. '蹣'의 현대 풀이는

고치견(蠹房), 발부르틀견(足病) 〈대한〉

이다. 뒤에 나올 '손'관련 어휘와 비교해 보면 어휘의 빈자리를 찾을 수 있다(예를 들면 '손톱'은 나오는데 '발톱'은 안나온다든가 엄지손가락은 나오는데 엄지발가락은 안나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역학서에 손가락은 관련 어휘가 많고 여러 문헌에서 나타나는 데 비해 발가락은 자체 항목만 그것도 〈역어〉한 문헌에서만 나타날 뿐이다.

6) 방긔비 費 〈왜어, 상 18〉

역학서에서 방귀를 나타내는 항목은 위 하나밖에 없다. 〈훈몽, 상 30〉에서 '방귀비 費'가 나타난다. 방귀에 대한 순우리말은 찾지 못했다. 한자어를 빌어 쓴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物譜〉에 의하면 '방긔'에 대한 한자어를

放屁, 餘氣, 放氣, 失氣 〈물보, 하 신체부〉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7) 비 腔子 〈역어, 상 35〉
비 肚子 〈역어, 상 35〉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ᄇᆡ복 復 〈왜어, 상 17〉
ᄇᆡ 肚子 〈동문, 상 16〉
ᄇᆡ 肚子 〈몽어, 상 13〉
ᄇᆡ 肚子 〈방류, —17b〉

腹曰擺 〈계림, 176〉
腹拜 〈조관, 423〉
ᄇᆡ두 肚 〈훈몽, 상 28〉
ᄇᆡ복 腹 〈훈몽, 상 28〉

다섯 역학서에 모두 'ᄇᆡ'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자어로는 '腹, 腔, 肚'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훈몽, 신체부〉에는 '腹, 肚'가 나타난다. 〈대한〉에 나타난 현대훈은 腔이 '창자강, 속빌강, 빠대강'이고 肚는 '밥통두'이다. 〈계림〉과 〈조관〉에서의 소리도 'ᄇᆡ'[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체어의 특성인 단음절성과 보수성을 지니고 있는 어휘이다.

8) ᄇᆡㅅ보록 肚膞子 〈역어, 상 35〉
ᄇᆡ쇽졔 膞 〈왜어, 상 17〉
ᄇᆡㅅ곱 肚膞子 〈동문, 상 16〉
ᄇᆡㅅ곱 肚膞 〈몽어, 상 13〉
ᄇᆡㅅ보록 膞 〈방류, —17b〉

ᄇᆡᆺ복비 毗 〈훈몽, 상 27〉
ᄇᆡᆺ복앙 肮 〈훈몽, 상 27〉
ᄇᆡᆺ복불 脖 〈훈몽, 상 27〉
ᄇᆡᆺ복졔 膞 〈훈몽, 상 27〉

2) 문선규(1972)·강신항(1974)에서도 'ᄇᆡ'로 읽고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현대의 '배꼽'을 나타낸다. 역학서에 나타난 배꼽의 형태로는 'ᄇᆡㅅ보록, ᄇᆡ옥, ᄇᆡㅅ곱'의 세 가지이다. 앞선 문헌인 〈훈몽〉에는 'ᄇᆡᆺ복비 毗, ᄇᆡᆺ복앙 肮, ᄇᆡᆺ복불 脖, ᄇᆡᆺ복졔 臍'로 나타나고 있고, 모든 훈은 'ᄇᆡᆺ복'이다. '배꼽'은 'ᄇᆡ+곱'의 합성어이다. 이것의 어원은 'ᄇᆡ(腹)+구멍'이란 뜻이다. '-곱'은 '굽'과 교체형으로 '曲'의 뜻이며, '둥그런 것, 穴' 등의 의미도 갖는다. '곱'의 용례는 '곱쟝이 (곱사등이)〈동문, 하 18〉, 曲은 고ᄇᆞᆯ씨라 〈석보, 11-6〉, 곱창(曲腸)'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굽'의 용례로는 '구불구불, 구벅구벅, 굽슬굽슬, 귀먹고 등구버〈법화, 2-167〉'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배꼽을 나타내는 방언을 보면 '-곱'이 구멍을 나타냄을 쉽게 알 수 있다.

배구멍[pɛ-gumәng] 경북) 영양. 왜관. 경남) 합천, 거창.
배구무[pɛ-gumu] 경북) 청도.
배꾸멍[pɛ-ʔkumәŋ] 경북) 영주, 안동, 봉화, 울진, 영덕, 포함, 경주, 영천, 고령, 군위, 예천, 문경, 상주, 김천. 경남) 밀양, 합천, 진주, 충무, 거제, 하동, 남해, 거창, 진양, 울주, 창녕, 김해, 의령. 전남) 진상, 곡성, 여수. 강원) 호산. 〈최〉

9) 아ᄅᆡᆺᄇᆡ 小肚 〈역어보, 22〉
아ᄅᆡᆺᄇᆡ 小肚 〈방류, -17b〉

아랫배 : 배의 배꼽 아래의 부분. 한) 소복. 하복. 맞) 윗배. 〈한〉

아랫배를 나타내는 합성어이다. 위 두 문헌에서만 나타난다. 대립되는 말인 '윗배'는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다섯 역학서 중에서 〈역어(보)〉와 〈방류〉의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10) 빅회 頭頂心 〈역어, 상 32〉

백회 : 백회혈(百會穴). 정수리의 숫구멍 자리.
숫구멍 : 갓난아이의 정수리가 채 굳지 않아서 숨쉴 적 마다 발딱발딱 뛰는 곳 한) 신문(囟門), 정문(頂門)
배코 : 상투를 앉히고자 머리털을 깎아 낸 자리. 배코를 치다 : ① 상투 밑의 머리털을 돌려 깎다. ② 머리를 면도하듯이 빡빡 깎다. 〈대한〉

〈역어〉에만 나타난다. '빅회'는 '배코'를 뜻한다고 보아왔다. 남광우(1991 : 중판)에서와 유창돈(1990 : 8판), 한글학회(1992 : 5140)는 모두 '배코'로 보고 있다.

11) 빅낙 白瘰 〈역어보, 22〉
흰어우럭이 白瘰風 〈물보, 하 신체부〉
검은어우럭이 紫瘰風 〈물보, 하 신체부〉

피부병을 나타내는 어휘이다. 〈역어보〉에만 나타난다. 참고로 〈물보〉에 나타난 위의 두 어휘는 이 문헌의 빈약한 표제어수에 비하면[3] 희귀한 어휘가 등재되었다는 면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것이다.

12) 손범아귀 手虎口 〈역어, 상 34〉
범아귀 手虎口 〈동문, 상 16〉
범아귀 手虎口 〈몽어, 상 13〉
손범아귀 手虎口 〈방류, ㅡ17a〉

3) 물보의 신체부 표제항 수는 形體 26, 氣血 50, 합해서 76개에 불과하다. 이것은 〈훈몽〉의 208, 〈역어〉의 179, 〈왜어〉의 95, 〈동문〉의 130, 〈몽어〉의 108, 〈방류〉의 149 등에 비하면 빈약한 양이라고 할 수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왜어〉를 제외한 네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어휘는 지금은 잘 쓰이는 어휘가 아니지만 네 문헌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당시에는 꽤 널리 사용되었던 어휘로 추정된다. 〈한〉에는 범아귀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사이'로 풀이하고 있다. 〈훈몽〉이나 〈신증유합〉 등 다른 분류어휘집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위 유해류 역학서에만 나타나는 어휘이다. '手虎口'에 대해 '손'이 들어간 것이 둘, 그냥 '범아귀'만 한 것이 둘이다.

13) 호송치 辦子 〈동문, 상 14〉
호송치 辦子 〈몽어, 상 11〉

辦 : 땋을변, 엮을변 〈대한〉
변발 : ① 머리를 뒤로 길게 땋아 늘임. 옛 몽고의 풍습으로, 남자의 경우 앞머리와 옆머리를 깎아 내고 남은 머리를 뒤로 땋아 늘였다. 한) 판발 · 편발.
② 뒤로 길게 땋아 늘인 머리. 〈한〉

위 두 문헌에만 나타난다. 중국의 풍습과 관련이 있기에 〈왜어〉에는 나타나지 않은 듯하다. '호송치'란 어휘는 지금은 死語化한 말이다. 유사한 어휘로 〈한〉에는 위와 같은 의미인 '변발'이 나타나고 있다.

14) 보죠개우물 笑印 〈역어보, 21〉
보죠개협 頰 〈왜어, 상 16〉
보죠개 笑印 〈동문, 상 15〉
보죠개 笑印 〈몽어, 상 11〉
보죠개우물 笑印 〈방류, 一16a〉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頰이나 笑印에 대해 '보죠개, 보조개우물'로 나타내었다, 頰은 〈훈몽, 상 25〉에서 '보죠개협'으로 나타내고 있다. 현대의 음과 훈은 '뺨'을 나타낸다.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다섯 역학서 중에 〈역어(보)〉와 〈방류〉의 동질성을 또한 엿볼 수 있다. '보죠개우물'이라는 어휘의 출현은 위 두 문헌 밖에 없다. 현대에서는 '보조개'는 '볼우물'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보조개우물'은 의미의 중복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보죠개'는 '볼+죠개'의 조어로 'ㅈ'앞에서 'ㄹ'이 탈락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남기탁 : 1988 : 71). '볼우물'은 '볼+우물'이고 '우물'은 '움+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볼움물'이란 단어가 '볼우물'과 동의어로 〈한〉에 나타나고 있음에서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보조개'에 대한 방언을 살펴보자.

보조개[podʒogɛ] 전국 일원.
볼물[pol-mul] 경북)김천. 충북) 영동. 전북) 진안.
볼우물[pol-umul] 경북) 김천. 전북)진안. 충북)영동.
새미[sɛmi :] 경남) 합천.
샘파젓다[sɛm-p'aʒət-ta] 전남) 진도, 완도, 장흥, 영암.
우물[umul] 경남) 양산, 김해. 〈최〉

이들 방언의 예에서 '우물'과 '샘'은 보조개를 나타내는 면에서는 최소한 부분동의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다른 옛 문헌에도 보조개가 '우물'과 관련되는 항이 나온다.

우물딜엽 靨 〈자류, 상 36b〉
靨 : 웃는 볼 옴쪽 들어갈 엽 〈대한〉

15) 陰門 屄屌, 八子 上소 〈역어, 상 35〉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음문 陰門 〈왜어, 상 18〉
陰門 八子 〈동문, 상 17〉
陰門 八子 〈몽어, 14〉

모두 여성의 성기를 일컫는 말이다. 〈방류〉를 제외한 네 문헌에 나타난다. 〈왜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자로 표기해 놓은 것이 이채롭다. 금기어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뒤에 나올 남성의 성기를 '陽物'로 표기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리고 새 문헌에서 '八子'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의 '보지'란 말의 소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陽物'에 대해 〈역어, 상 35〉에서 '鳥子'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들을 의미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훈몽〉에서는 두 표제어가 나온다.

구무비 屁 〈훈몽, 상 30〉
구무쥬 屎 〈훈몽, 상 30〉

〈훈몽〉에서는 '구무'로 표기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 '구멍'이 되었다. 흔히 '밑구멍'이라 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밑구멍 : 무슨 물건의 밑에 뚫린 구멍.=똥구멍.=보지. 〈한〉

16) 발안쑤머리 內踝 〈역어, 상 36〉
발밧쑤머리 外踝 〈역어, 상 36〉
복쇼아뼈 踝子骨 〈역어, 상 36〉
복쇼아쎅 踝子骨 〈동문, 상 16〉
복쇼아쎅 踝子骨 〈몽어보, 6〉
발안쑤머리 內踝 〈방류, 一18a〉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발밧구머리 外踝 〈방류, 一18a〉
복쇼아쎠 踝子骨 〈방류, 一18a〉

현대어 '복사뼈'와 관련되는 항목들이다. 〈왜어〉를 제외한 네 문헌에 비교적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도 〈역어〉와 〈방류〉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발안쑤머리'는 오늘날 '안복사뼈'이고 '발밧쑤머리'는 '밖복사뼈'이다. 작은 복사뼈를 다시 나눈 것은 상당히 정밀한 신체어휘를 실현시키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되는 몇 항목을 추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귀머리과 踝 〈훈몽, 상 29〉
귀머리 : 복사뼈 〈유〉
踝 : 복사뼈과(足骨跟也) 〈대한〉
안복사뼈 : 발회목 안쪽 복사뼈 〈한〉
밖복사뼈 : 발회목 바깥쪽의 복사뼈 〈한〉

〈훈몽〉에 나타난 '귀머리'는 〈유〉에서 '복사뼈'를 나타낸다고 했다. 그렇다면 '귀머리>쑤(구)머리'가 되었다. 그러나 뒤에 '복쇼아쎠'가 나와 '귀머리'류는 사어화한 것으로 보인다.

17) 볼기 臀 〈역어, 상 35〉
볼기딱 股臑 〈역어보, 22〉
볼기둔 臀 〈왜어, 상 17〉
볼기 臀子 〈동문, 상 16〉
볼기 屁胯 〈몽어, 상 13〉
볼기짝 屁股蛋 〈몽어보, 6〉
볼기 屁股 〈방류, 一18a〉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현대어 '불기'를 나타내는 어휘들이다. 다섯 역학서에 모두 나타난다. 역어보〉〈몽어보〉에는 '불기짝'이 나타난다.

믿둔 臀〈훈몽, 상 27〉
믿둔 臀〈신증, 상 21〉
불기 : 엉덩이와 궁둥이의 언저리. 한) 둔부.〈한〉
臀 : 불기둔〈대한〉
鴠 : 할단새단〈대한〉
股 : 다리고. 나뉠고. 굳을고.〈대한〉
胯 : 다리고. 사타구니과.〈대한〉

역학서보다 앞선 문헌인 〈훈몽〉과 〈신증〉에서는 '믿'으로 실현된다.

18) 불 卵子〈역어, 상 35〉
불 卵脬〈역어보, 22〉
음낭 陰囊〈왜어, 상 18〉
불 卵胞〈동문, 상 17〉
불알 卵子〈동문, 상 17〉
불 卵胞〈몽어, 상 14〉
불 卵子〈방류, 一18a〉

卵 : 알란(凡物無乳生者). 기를란(撫育). 클란(大也). 불알란(睾丸).〈대한〉
脬 : 오줌통포(膀胱)〈대한〉
囊 : 주머니낭. 자루낭. 큰구멍낭. 떠들썩할낭. 쌀낭. 지갑낭.〈대한〉
胞 : 태보포(胎衣). 한배포 · 동포포(父所生曰同一)〈대한〉
불 : ① 불알을 싸고 있는 살로된 주머니. 한) 불알주머니. 음낭. ② '불알'의 준말.〈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전 역학서에 나타난다. 앞선 문헌인 〈계림〉이나 〈조관〉은 물론 〈훈몽〉이나 〈신증〉에도 나타나지 않는 표제어이다. 그럼에도 다섯 역학서에서 모두 나타난다는 것은 이들 역학서의 강한 동질성을 말해 주는 것으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들 문헌에 나오는 '불'과 '음낭'은 아무런 변동없이 오늘날 그대로 쓰이고 있어서 신체어의 보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한〉에서 보듯 '불'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역화서에서 두 의미를 분리한 것은 〈역어(보)〉와 〈동문〉이다. 〈왜어〉, 〈몽어〉에서는 ①의 의미만을, 〈방류〉에서는 ②의 의미만을 지칭한 것으로 파악된다.

19) 불ㅅ줄기 卵根子 〈역어, 상 35〉
불줄기 : 불알 밑에서부터 똥구멍까지 잇닿은 심줄. 준) 불줄 〈한〉

이 표제어는 〈역어〉 한 문헌에만 나타난다.

20) 비듬 浮皮, 風屑 〈역어, 상 32〉
비듬 麩皮 〈방류, --18b〉

麩 : 밑기울 부 (小麥屑皮) 〈대한〉

〈역어〉와 〈방류〉에만 나타난다. '비듬'이란 훈은 변화없이 지금 그대로 쓰이고 있다. 비듬을 나타낸 한자어가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의 소리는 같은 점이 다소 특이하다.

21) 쌈 腮頰 〈역어, 상 33〉
쌈의 腮 〈왜어, 상 16〉
쌈 腮頰 〈동문, 상 14〉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쌈 腮頰 〈몽어, 11〉
쌈 腮 〈방류, —15b〉

현대어 빰을 나타낸다. 다섯 역학서 모두의 신체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모두 '쌈'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한자어로는 '腮'와 '腮頰'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앞선 문헌을 살펴보면

쌈ᄉᆡ 顋 〈훈몽, 상 25〉
쌈관 顴 〈훈몽, 상 25〉
쌈ᄉᆡ 腮 〈신증, 상 21〉

등을 찾을 수 있다. 이들 한자를 현대어로 옮겨보면

腮 : 顋의 속자 〈대한〉
顋 : 빰시. 볼ㅅ(頰也) 〈대한〉
頰 : 빰협(面兩旁). 천천히말할협(緩 — 徐言讐說) 〈대한〉
顴 : 광대뼈권(頰骨) 〈대한〉

〈훈몽〉의 '顴'은 뒤의 문헌에서는

광대쎠 顴 〈물보, 신체부〉
권골권 顴 〈자류주석〉
관골관 顴 〈아학편〉
관골관 顴 〈자전석요〉

에서처럼 모두 '광대뼈'로 나타난다. 따라서 '권'은 〈훈몽〉에서 보이는 빰의 의미가 더 이상 없이 의미 변화가 일어났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22) 쎠골 骨 〈왜어, 상 18〉
쎠 骨頭 〈동문, 상 16〉
쎠 骨頭 〈몽어, 상 13〉
쎠 骨頭 〈방류, ㅡ18b〉

〈역어〉에만 나타나지 않는다. 앞선 문헌들을 살펴보자.

骨處 〈조관, 421〉
쎠히 骸 〈훈몽, 상 28〉
쎠골 骨 〈훈몽, 상 28〉
쎠ᄌᆞ 髓 〈훈몽, 상 28〉
쎠골 骨 〈신중, 상 22〉

〈조관〉에서의 '處'가 '骨'에 대한 우리말 표기라고는 인정되지 않는 의문의 글자이다. 〈훈몽〉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모두 '쎠'를 나타내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역학서에는 매우 간명한 모습의 음과 훈을 보일 뿐이다. 이것은 〈훈몽〉에서와 같은 여러 가지 어휘를 망라한 자전적 역할 대신에 당시에 쓰이던 보편적이고 널리 퍼져있는 어휘를 수록한 특징을 엿볼 수 있다.

23) 샤마괴 黶子, 黑子 〈역어, 상 36〉
므샤마괴 黃子, 紅子 〈역어, 상 36〉

사마귀를 나타낸다. 〈역어〉의 신체부에만 '샤마괴', '므샤마괴'가 각각 두 항씩 나타난다. 다른 역학서나 앞선 문헌들에서 이 항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샤마괴염 黶 (俗又稱黑子) 〈훈몽, 중 34〉 ㅡ 疾病部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샤마괴염 黶 〈신증, 상 22〉
샤마귀염 黶 〈왜어, 상 51〉 - 疾病部
샤마괴 黑子 〈동문, 상 19〉 - 容貌部

위에서 〈신증〉을 제외하고 모두 '신체부'가 아니다. 즉, '샤마괴(귀)'는 '신체부'외에 '질병부'나 '용모부'로 분류될 수 있는 어휘이다. '신체어'를 '신체부'에 한정해서 논할 때 그 범위 설정이 쉽지 않게 된다. 같은 어휘가 '신체부'가 되든가 '질병부'나 '용모부'가 되든가는 당시 편찬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다름아니다. 여기서는 그 주관성을 비판할 처지에 있지 않고 역학서의 신체부에 나타난 어휘의 모습들을 탐색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24) 술긔 肌 〈왜어, 상 18〉
술 肌膚 〈동문, 상 17〉
술 肌膚 〈몽어, 상 13〉

〈역어〉와 〈방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앞선 문헌들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肥曰骨盛眞 亦曰盛骨易成 〈계림, 179〉
肥 色尺大 〈조관, 426〉
술긔 肌 〈훈몽, 상 28〉
술부 膚 〈훈몽, 상 28〉
술질비 肥 〈훈몽, 하 7〉 - 雜語部
술질팡 蚌 俗呼一漢子 술진놈 〈훈몽, 상 29〉
술질비 肥 〈유합, 하 2〉
술긔 肌 〈신증, 상 22〉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술부 膚 〈신증, 상 22〉

'술'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계림〉에서는 '염글(진)'과 '염글이셔'로 풀이할 수 있다. '염글다'는 '여물다'의 뜻이 있다. 다음의 예는 이 사실을 뒷받침 한다.

염굴실 實 〈石千.22〉
염그다 實了 〈역어, 하 9〉
손바리 염그르시며 〈월석, 二 59〉
술지고 염글오 肥實 〈구간, 一 5〉

〈조관〉의 '色尺大'는 '술지다'[4]로 본다. '술'에 관한 한자어는 '肥, 肌, 膚, 蚌'이 된다.

25) 살쩍 髮際 〈동문, 상 14〉
살쩍 髮際 〈몽어, 상 11〉
살적 鬢角 〈방류, 一 17a〉

'살쩍(적)'이란 훈이 나오는 역학서의 문헌은 위 세 가지이다.[5] 이에 대해 좀 더 천착하면

살쟉빈 鬢 〈유합, 상 21〉

4) 문선규(1972 : 279)에서는 '술찌다'로, 강신항(1974 : 73)에서는 '술지다'로 재구하고 있다. 필자는 후자의 의견을 수용한다. 왜냐하면 〈훈몽〉이나 〈유합〉과 같은 한자 학습서가 문장을 나타낸 다른 문헌들에 비해 원음에 다소 충실했으리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이다.

5) 이와 관련해서는 이 글의 앞부분인 "유해류 계통의 분류어휘집에 나타난 신체어(Ⅰ)"중의 12)항을 참조할 것.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살작빈 鬢 〈신증, 상 21〉
살쩍:① 뺨 위 귀 양 쪽에 난 머리털. 한) 빈모. ② '살쩍밀이'의 준말. 〈한〉

등의 항목을 삽입할 수 있다.

26) 삼초 三膲 〈왜어, 상 18〉
삼쵸 三焦 〈방류, 一 17b〉

역학서 중 두 문헌에서만 나타난다. 삼초의 현대적 풀이는 다음과 같다.

삼초:((한의))몸통을 셋으로 나눈 상초와 중초와 하초. 음식을 흡수, 소화, 배설한다. 〈한〉

三膲와 三焦는 같은 뜻으로 쓰였다. 둘 다 훈은 '삼초'이다.

27) 샹토 纕子 〈동문, 상 14〉

상투에 대한 신체부의 유일한 어휘이다. 과연 상투를 신체부에 넣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는 다음에 논하기로 한다. 신체부가 아닌 곳에서 상투에 대한 표제어가 몇 군데 등장한다.

샹토 纕子 〈역어, 상 47〉 - 梳洗部
샹토계 髻 〈왜어, 상 44〉 - 梳洗部
샹투계 髻 又女冠曰髽 〈훈몽, 중 25〉 - 服飾部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와 같이 이 어휘의 소속부는 문헌마다 다소 다르다.

28) 샤티 雜頭髮 〈역어, 상 34〉

역학서 중 〈역어〉에 유일하게 나온다. 앞선 문헌에도 발견되지 않는다. '샤티'는 지금의 '새치'이다.

새치 : 젊은 사람의 머리에 섞인 센털 〈한〉

29) 속눈섭 眼挾毛 〈역어보, 21〉
속눈ㅅ섭 眼睫毛 〈몽어보, 21〉
속눈섭 眼睫毛 〈방류, ㅡ16a〉

〈왜어〉와 〈동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훈몽, 상 25〉에는 '눈시올첩睫'으로 나타나고 있다, 睫의 현대 훈은 '속눈썹'이므로 〈훈몽〉과는 달라졌다. 합성어인 속눈썹은 변동없이 오늘날까지 그 형을 유지해 왔다.

30) 손슈 手 〈왜어, 상 17〉
손 手 〈동문, 상 15〉
손 手 〈몽어, 상 12〉
손 手 〈방류, ㅡ17a〉

'손'이 나타나지 않는 곳은 역학서 중 〈역어〉가 유일하다. 그런데 〈역어〉 신체항에는 손은 나오지 않지만 손과 관련하여 합성어를 이루고 있는 표제어는 열 개나 된다. 그럼에도 그 중심인 손이 실려 있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손은 역학서보다 앞선 문헌에서도 다음과 같이 '손'으로 나타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手曰遜 〈계림, 177〉
手 算 〈조관, 416〉
손슈 手 〈훈몽, 상 26〉

〈계림〉이나 〈조관〉에서 '손'으로 읽고 있다. 따라서 손은 신체어의 특징인 보수성과 단음절성까지 갖춘 신체어이다.

31) 손ᄯᅡ락 手指頭 〈역어, 상 34〉
손가락지 指 〈왜어, 상 17.
손가락 手指 〈동문, 상 16〉
손가락 手指 〈몽어, 상 12〉
손가락 指頭 〈방류, ㅡ17b〉

다섯 역학서에 모두 나타난다. 훈도 〈역어〉의 '손ᄯᅡ락'을 제외하면 같은 형태이다. 〈훈몽, 상 26〉에서 '손가락지 指'로 등재된 것으로 봐서 '손'과 '가락'사이의 'ㅅ'이 형태소 경계를 넘나들면서 분철되거나 연철되다가 'ㅅ'이 없어지는 과정을 겪어 오늘의 '손가락'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손가락의 종류들에 대한 역학서에서의 어휘가 다음과 같이 (32-36) 많았던 것이 특기할 만한 일이다.

32) 第一指 拇指, 上仝 大拇指 〈역어, 상 34〉
모지 拇指 〈왜어, 상 17〉
엄지가락 拇指 〈동문, 상 16〉
엄지가락 拇指 〈몽어, 상 12〉
제일지 大指 〈방류, ㅡ17b〉

다섯 역학서 모두에서 발견된다. 〈역어〉에는 표기 자체를 한자로 했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고, 〈왜어〉와 〈방류〉에서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읽었고, 〈동문〉과 〈몽어〉에는 고유어 표기를 하였다. '엄지가락'이라는 훈은 손가락 뿐만 아니라 발가락에도 통용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ᄲᆞᆯ리 밠 엄지가락 아랫 ᄆᆞᄅᆞᆫ 그믈 ᄭᅮᆫ디(急灸足大趾下橫文) 〈구방, 상 2〉
어이밠가락 첫 ᄆᆞ디 뒤헤오목ᄒᆞᆫ 가온ᄃᆡ롤 나 마초 쓰라(灸足大都 隨年壯) 〈구간, 3-75〉
엄지가락모 拇 〈훈몽, 상 29〉
엄짓가락 :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대한〉
拇 : 엄지손가락무(手大指) 〈대한〉

'어ㅅ'는 어버이를 나타내었다. '어ㅅ=엇>어이'의 변화를 겪는다. 위 〈구간〉에 나오는 '어이밠가락'은 엄지발가락을 지칭한다. 결국 '엄지'의 의미는 '어버이'에 다름아닌 것이다. 즉, (자식들보다 더 큰)어버이 곧 어른의 의미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엄지가락'은 '제일지'가 되는 것이다.

33) 第二指 指人指 〈역어, 상 34〉
지인지 指人指 〈왜어, 상 17〉
둘재가락 指人指 〈동문, 상 16〉
둘재가락 指人指 〈몽어, 상 12〉
제이지 指人指 〈방류, -17b〉

둘째손가락에 대한 표제어들이다. 흔히 오늘날에는 집게손가락이라고도 하고 人指라고도 하지만 집게손가락이란 어휘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동문〉과 〈몽어〉는 '둘재가락'이라 하여 순우리말 훈을 달고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指人指에서 오늘날의 人指라는 한자어가 나온 듯 하다.

34) 第三指 長指, 上소 中拇指 〈역어, 상 34〉
장지 長指 〈왜어, 상 17〉
당가락 長指 〈동문, 상 16〉
당가락 長指 〈몽어, 상 12〉
제삼지 中指 〈방류, 一17b〉

가운데손가락을 나타내고 있다. 장지, 당가락, 제삼지 등으로 우리말을 실현하고 있고 한자로는 長指가 보편적이고 中指도 쓰이고 있다.

35) 第四指 無名指 〈역어, 상 34〉
무명지 無名指 〈왜어, 상 17〉
無名指 ---〈동문, 상 16〉
無名指 ---〈몽어, 상 12〉
제ᄉᆞ지 無名指 〈방류, 一17b〉

약손가락을 나타내고 있다. 역학서의 전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 無名指는 그대로 소리 낸 듯하고 순우리말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36) 第五指 小指 〈역어, 상 34〉·上소 小拇指 〈역어, 상 35〉
쇼지 小指 〈왜어, 상 17〉
小指 --〈동문, 상 16〉
小指 --〈몽어, 상 12〉
제오지 小指 〈방류, 一17b〉

새끼손가락을 나타내고 있다. 모두 한자어로 말해지고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손가락'항과 그 종류들은 다섯 역학서 모두에 나타나고 있음이 특징이다. 또한 여기서도 〈역어〉와 〈방류〉에 나타난 어휘의 유사성이 입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문〉과 〈몽어〉의 형태적 유사성이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동시대(1748년과 1768년)의 문헌이기 때문이다.

37) 손ㅅ삿 手Y子 〈역어, 상 34〉
손ㅅ삿 手Y 〈역어보, 22〉
손ㅅ삿 手Y 〈방류, ㅡ17a〉

〈역어〉와 〈방류〉에서만 나타난다. Y는

Y : 두갈래질아(物之岐頭), 가닥날아(分形) 〈대한〉

이다. '손ㅅ삿'은 '두 손가락의 살'을 말한다. '살'이란 '① 두 다리의 사이. ② 두 물건의 틈.'으로 〈한〉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삿'은 '삿ㅎ'으로도 실현되었다.

삿흘 발로 버릐치다 〈한청, 4ㅡ50〉

그 외에도 삿은 닛삿, 다리삿, 삿깃(기저귀) 등으로 쓰이었다.

38) 손ㅅ금 手紋 〈역어, 상 34〉
손ᄆᆞᆷ에고리 手破落 〈역어, 상 36〉
손ᄆᆞᆷ에키 手箑箕 〈역어, 상 36〉
손ㅅ금 手紋 〈동문, 상 16〉
손ㅅ금 手紋 〈몽어, 상 12〉
손ㅅ금 手紋 〈방류, ㅡ17a〉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세 문헌에서만 나타난다. 〈역어〉에서 '손ㅅ금' 관련 구가 두 개 나타난다. 다른 문헌에서 '손ㅅ금'에 해당하는 표기를 살펴보면

설흔 닐굽차린 손그미 ᄀᆞᆯ히나고 고ᄃᆞ시며 〈월석, 2-57〉
손금과 腡 〈훈몽, 상 25〉

등이 있다. 여기서 언급한 형태만도 '손ㅅ금, 손ᄆᆞᆷ, 손금, 손금'의 네 가지이다. 문헌의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손ㅅ금>손금>손ᄆᆞᆷ>손ㅅ금'의 순서를 보인다.

39) 손ㅅ등 手背 〈역어, 상 34〉
슈비 手背 〈왜어, 상 17〉
손ㅅ등 手背 〈동문, 상 16〉
손ㅅ등 手背 〈몽어, 상 12〉
손등 手背 〈방류, -17A〉

다섯 역학서 모두에서 발견된다. 〈왜어〉를 제외하고 고유어가 올려져 있다.

40) 손목 手腕子 〈역어, 상 34〉
슈완 手腕 〈왜어, 상 17〉
손목 手腕 〈동문, 상 15〉
손목 手腕 〈몽어, 상 12〉
손목 手腕 〈방류, -17a〉

다섯 역학서 모두에서 발견된다. 역시 〈왜어〉를 제외하고 고유어가 올려져 있다. 앞에서 '발목'이 한 문헌에서만 나왔었는데 그것에 비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면 '손목'의 용례는 풍부한 편이다.

41) 손ㅅ바당 手心, 上소 手掌 〈역어, 상 34〉
손바당쟝 掌 〈왜어, 상 17〉
손비당 手掌 〈동문, 상 15〉
손ㅅ바당 手掌 〈몽어, 상 12〉
손ㅅ바당 手心 〈방류, 一17a〉

다섯 역학서에 모두 나온다. 〈동문〉의 '손비당'은 '손바당'의 오기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손비당'이란 표기는 〈동문〉이 유일하고 '비'와 '바'의 관련을 짓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문헌들을 천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예들을 들 수 있다.

숀바다올 드러 히 ᄃᆞᆯ ᄆᆞ리와ᄃᆞᆫ 日月食 ᄒᆞᄂᆞ니라 〈월석, 2-2〉
合掌은 숀바당 마촐 씨라 〈월석, 2-29〉
손바독 쟝 掌 〈훈몽, 상 26〉
손빠당티다 打手掌 〈역어, 하 52〉
손바당을 세 번 전반으로 티ᄂᆞ니라(手心上打三戒方) 〈박해, 상 45〉
숀바닥 뒷 ᄆᆞ디예 ᄆᆡᄂᆞ니라 〈가례, 5-12〉

즉, '숀바당/손빠당/숀바독/손빠당/손바당/손빠닥/손ㅅ바당' 등의 여러 형태를 보이고 있다.

42) 손ㅅ돕 手指甲 〈역어, 상 34〉
손톱조 爪 〈왜어, 상 17〉
손돕 手指甲 〈동문, 상 16〉
손발돕 手脚指甲 〈몽어, 상 13〉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손ㅅ돕 手指甲 〈방류, 一17a〉

다섯 역학서에 모두 나타난다. '손톱·발톱'의 '톱'은 연장인 톱(鉅)과 관련을 지우기도 한다(이남덕 : 한국어 어원 연구 Ⅰ, 1985 : 391). 톱이란 목공 연장이 '톱니(鉅齒)'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모양이 사람이나 짐승의 手足의 톱과 공통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다.

43) 입웃나롯 鬚 〈역어, 상 34〉
입아랫나룻 鬚 〈역어, 상 34〉
三角鬚 ㅡ ㅡ ㅡ 〈역어, 상 34〉
ᄐᆞᆨ앳나롯 髯 〈역어, 상 34〉
나롣 슈 鬚 〈왜어, 상 17〉
나롣염 髯 〈왜어, 상 17〉
륵슈 勒鬚 〈왜어, 상 17〉
나롯 鬍子 〈동문, 상 15〉
나롯 鬍子 〈몽어, 상 12〉
나롯 鬍鬚 〈방류, 一17a〉

다섯 역학서에 모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역어〉에는 '나룻'의 종류를 네 가지나 표제어로 삼아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다. 다른 앞선 문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鬚 那落 〈조관, 414〉
입거웃슈 鬚 〈훈몽, 상 28〉
거웃ᄌᆞ 鬚 〈훈몽, 상 28〉
거웃염 髯 〈훈몽, 상 28〉
귀밑털슈 鬚 〈신증, 상 21〉
날웃염 髯 〈신증, 상 21〉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조관〉의 那落은 '나롯'으로 읽고 있다(문선규, 1972:414, 강신항, 1974:72). 현대어 나룻은 '날옷/날옺/나롯/나롣'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구체적 용례 생략). 〈훈몽〉에 보이던 '입거웃/거웃'이 역학서에 와서는 '나롣/나롯'으로 실현되고 있다.

거웃 : 사람의 생식기의 주위에 난 털. 한) 음모, 치모. 〈한〉
三角鬚 : 두 뺨과 턱에 세 갈래로 난 수염. 〈한〉

위와 같은 현대적 의미로 보아 '거웃'은 의미 영역이 다소 달라졌다.

44) 숫구무 天門 〈역어, 상 32〉
숫구무 囟門 〈역어보, 21〉
숫구무 囟門 〈동문, 상 14〉
숫구무 囟門 〈몽어, 상 11〉
숫구무 囟門 〈방류, ㅡ15b〉

〈왜어〉를 제외한 전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학서 전의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 모두 순우리말 '숫구무'로 실현되고 있다. 한자어도 〈역어〉의 '天門'을 제외하고는 '囟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동질성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에는

신문(囟門) : 숫구멍, 정수리. 〈한〉
숫구멍 : 갓난아이의 정수리가 채 굳지 않아서 숨쉴 적마다 발딱발딱 뛰는 곳. 한) 신문, 정문. 〈한〉
정수리 : 머리 위에 숫구멍이 있는 자리. 한) 뇌천, 머리꼭지, 신문, 정문, 정심. 〈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으로 쓰이고 있다. 현대적 의미로 정수리와 숫구멍은 동의관계에 있으나 완전동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수리가 숫구멍에 비해 조금 더 범위가 넓은 듯하다.

한편 한자어 '신'자의 현대적인 훈은

囟 : 숨구멍신(小兒頂門) 〈대한〉
顖 : 숫구멍신, 쥐구멍신(頂門) 〈대한〉
顖 : 顖의 속자 〈대한〉

45) 숨통 嗉帶 〈역어, 상 34〉
숨통 氣衝 〈역어보, 21〉
숨통 氣嗉 〈방류, 一16b〉
쥴듸 嗉帶 〈방류, 一16b〉

〈역어(보)〉와 〈방류〉 두 문헌에 표제어 넷으로 나온다. '숨통'은 오늘날에 같은 의미로 수용한다. '쥴듸'는 오늘날 '줄띠'(목줄띠)가 아닌가 한다. 이들의 사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숨통 : 목구멍의 아래 쪽 밥줄의 앞쪽에 있어서 숨쉴 때에 공기가 통하는 통. 한) 기관, 숨관, 명통. 〈한〉
줄띠 : (생)목줄띠의 준말. 〈한〉
목줄띠 : 목구멍의 심줄. 준) 줄띠. 한) 목줄. 〈한〉

46) 뿔개 肚子膽 〈역어, 상 35〉
쓸기담 膽 〈왜어, 상 18〉
쓸개 肚子膽 〈동문, 상 17〉
쓸게 肚子膽 〈몽어, 상 13〉
뿔개 膽 〈방류, 一17b〉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역학서 다섯 문헌에 모두 나오고 있다. 다른 문헌에서

뿔게담 膽 〈훈몽, 상 27〉 〈신증, 상 22〉
돗ᄐᆞ 뿔개 반 잔애 ᄒᆞᆫ디 골라 흘리라 〈마경, 하 66〉

을 찾을 수 있었느다. '뿔게>뿔개>쓸기\쓸개' 등의 형태변화를 겪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당시에도 '-게'와 '-개'의 혼용을 엿볼 수 있다.

참고 문헌

〈논문류〉

강신항(1974), 조선관역어 연구, 백합출판사.
곽재용(1991), 중세국어의 신체어, 경남어문논집 제4집,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_____ (1992a), 방언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몇 어휘, 영남어문학 제22집, 영남어문학회.
_____ (1992b), 유해류 계통의 분류어휘집에 나타난 신체어(Ⅰ), 경남어문논집 제5집,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남광우(1984), 한국어의 발음연구(Ⅰ), 일조각
김영태(1975), 경상남도 방언연구(Ⅰ), 진명문화사.
김재문(1992), 진주지역 방언조사(Ⅲ), 진주문화 제11호, 진주문화권연구소.
김정대(1990), 경남방언 문법연구의 흐름과 과제, 경남어문 제23호, 경남어문학회.
김종택(1986), 머리, 허리, 다리의 어원 추정,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_____ (1992), 국어어휘론, 탑출판사.
김형철(1992), 어휘론 연구사, 국어국문학 40년, 집문당.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남기탁(1988), 훈몽자회 〈신체〉부 자훈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문선규(1972), 조선관역어 연구, 경인문화사.
박정수(1976), /ㆍ/음소에 대해 - 경남 산청방언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 동아대.
_____ (1992), 변동규칙에 의한 경남방언의 분화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방종현(1955), 계림유사연구, 동방학지 2.
송기중(1985), 「몽어유해」 연구, 역사언어학, 전예원.
양태식(1983), 〈손〉을 둘러싼 어휘소무리의 의미구조, 새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_____ (1984), 국어구조의미론, 태화출판사(재판, 서광학술자료사, 1992).
염선모(1987), 국어의미론, 형설출판사.
이기문(1971), 훈몽자회연구, 한국문화연구소.
_____ (1983), 국어사개설, 탑출판사(개정판 15쇄)
이남덕(1985), 한국어 어원 연구 Ⅰ,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임지룡(1989), 국어 분류어휘집의 체제와 상관성, 국어학 19, 국어학회.
_____ (1992),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정 광(1978), 유해를 역학서에 대하여, 국어학 7, 국어학회.
조건상(1968), 동문유해의 국어사적 연구, 충북대학 논문집 2.
_____ (1971), 동문유해의 국어사적 연구(Ⅱ), 충북대학논문집 5.
홍윤표(1993), 국어사 문헌자료 연구, 태학사.

〈사전류 및 약어〉

남광우(1991), 보정고어사전, 일조각. 〈남〉
유창돈(1990),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유〉
장삼식(1975), 대한한사전, 박문출판사. 〈대한〉
최학근(1978),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최〉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1~4). 〈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자료 및 약호〉

훈몽자회……〈훈몽〉
역어유해……〈역어〉
역어유해보……〈역어보〉
신증유합……〈신증〉
석봉천자문……〈석천〉
왜어유해……〈왜어〉
동문유해……〈동문〉
몽어유해……〈몽어〉
몽어유해보……〈몽어보〉
방언유석……〈방류〉
물보……〈물보〉
한청문감……〈한청〉
자류주석……〈자류〉
자전석요……〈자전〉
신자전……〈신자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